해 외 정 보

세계 타이어시장 불황 모른다

수요 꾸준 · 원자재값 상승으로 판매價 인상 전망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시장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자동차 수요는 계속 줄어들거나 현상유지에 그치는 반면 타이어는 최소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판매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가격상승 추세가 이어져 보기 드문 활황을 구가할 전망이다.

(1) 5대 제조사 매출 60% 차지

현재 세계 타이어시장을 지배하는 5대 제조사 즉, 미쉐린(Michelin), 굿이어(Goodyear-Sumitomo), 브릿지스톤(Bridgestone), 콘티넨탈(Continental), 피렐리(Pirelli) 등은 전체 매출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보다는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치명적인 가격인하 압력에 대처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문량도 이미 증가 추세에 접어들어 상당한 매출 신장이 기대될 뿐 아니라 원료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게 될 경우 마진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타이어 업계는 이른바 '올리고폴'이라는 연합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가격인하 경쟁을 막고 꾸준한 제품가격 인상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데는 별다른 저항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조사별 세계 시장 점유율

(단위 : %)

Goodyear-Sumitomo	Bridgestone	Michelin	Continental	Pirelli	기타
22	20	19	7	4	28

(자료 : Continental AG)

제조사별 유럽 시장 점유율

(단위 : %)

Michelin	Continental	Goodyear-Sumitomo	Bridgestone	Pirelli	기타
24	20	19	10	9	18

(자료 : Continental AG)

또한 최근 유로화가 미 달러에 비해 강세기조를 유지하는 점 역시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타이어 업계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미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출시한 몇몇 제조사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티넨탈의 경우, 상용차 타이어 가격을 인상했고, 이어 굿이어와 미쉐린도 조만간 제품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제품의 특성 상 완성차 제조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타이어 업계의 시장 장악력을 짐작케 하는데 미쉐린은 GM이 최대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 압력이 계속될 경우 계약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으름장을 서슴없이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완성차에 최초 부착되기 위해 완성차 제조사에 납품되는 가격마진이 일반 판

매상에 제공되는 마진에 비해 절반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하다.

(2) 브릿지스톤 순익 160% 증가

더욱이 교체용 타이어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전체의 70%에 이르며, 이 부분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 따라서 교체용 타이어 판매는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선호도가 전체매출을 많은 부분 좌우하게 된다.

한편 제조사별로 지난 해 실적을 살펴보면, 브릿지스톤은 지난 해 순이익이 무려 160%나 증가했고, 미쉐린 역시 96% 순이익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굿이어와 콘티넨탈 역시 자세한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최고의 영업실적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 시장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프랑스의 미쉐린은 2~3년 전부터 이어지는 경기부진에 대비, 경쟁력 있는 제품의 고가정책, 코스트 절감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아울러 일본의 브릿지스톤사도 지난 2001년 미국 시장에서 겪었던 자매 브랜드 파이어스톤(Firestone)의 대량리콜사태의 충격에서 회복, 작년에는 3억5,000만 유로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콘티넨탈(Continental)도 2001년의 부도위기에서 안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굿이어(Goodyear)는 높은 부채와 구조조정의 몸살을 당분간 더 겪어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벨기에 자동차 타이어 수입 늘 듯

현지 생산 全無…올 교체수요 3% 증가 전망

벨기에는 승용차 타이어 생산 공장이 전무해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벨기에에 소재하는 유일한 타이어 제조공장인 콘티넨탈 타이어 생산공장에서는 트럭용 특수 타이어만을 제조하고 있다.

EU 회원국중 주요 타이어 생산국은 프랑스와 독일로, 프랑스는 유럽 1위의 승용차용 타이어 생산국(미쉐린)인 한편 독일은 트럭용 타이어(콘티넨탈) 생산국이다. EU의 연간 타이어 생산량은 2억3천만개로 매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 지프형車 인기로 수요 급증

벨기에에는 볼보, 폴크스바겐, 오펠, 포드 등 4개의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연간 백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 조립생산시 널리 사용되는 타이어 브랜드는 미쉐린, 굿이어, 피렐리, 콘티넨탈, 유니로얄, 브릿지스톤(파이어스톤), 한국 등이다.

벨기에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5백만대인데 평균 약 18개월마다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타이어 교체 시장 규모는 연간 약 600만~650만피스로 추정된다.

2002년 벨기에의 타이어 교체시장 수요는 2001년과 거의 같은 1~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타이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3%선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현지업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소폭 증가세는 벨기에 자동차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여서 자동차 신규수요가 제한적인 데다가 타이어 자체의 품질이 높아져, 타이어 수명이 길어진 것도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EIU는 서유럽의 자동차 타이어 판매는 2001년 2억4백

만개에서 2005년에는 2억8백만개로 완만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벨기에 시장을 포함한 유럽시장의 경우 신규 자동차 보유 인구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브릿지스톤 유통센터 추진

최근, 지프차형(4X4)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프차형 타이어 수요도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벨기에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2001년 유럽에서 승용차 타이어의 총 판매는 1억4천만피스로 2000년 대비 0.5%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반해 지프차용 타이어는 410만피스로 전년대비 무려 19%나 증가해,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2001년 벨기에는 총 1,860만피스의 승용차용 신규 타이어를 수입하여 2000년 대비 8.8% 증가했다.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65만피스로 전년대비 18.6% 감소했다. 2002년 9월까지도 총수입은 1,370만피스로 2001년 9월 대비 0.7% 감소한 한편 대한국 수입은 51만5천피스로 7.1% 감소했다.

(3) 브랜드별 경쟁 심화할 듯

그러나 현지 업계는 이러한 대한수입 감소가 벨기에의 대한수입 수요감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부터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물량만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벨기에 시장 확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벨기에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지적, 중급 이하 시장에서는 중국산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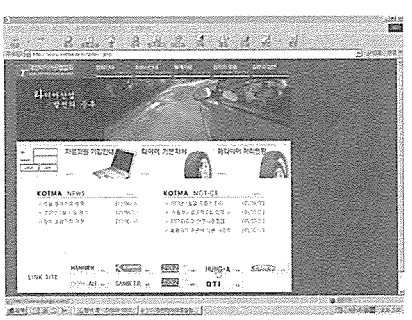
현지 업계는 2003년의 한국산 타이어 수입이 2002년보다 5~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일본산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은 벨기에 Zeebrugge 항구지역에 Europe Distribution Center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벨기에는 물론이고 유럽시장 판로 확대를 기하고 있어 올해도 벨기에 타이어 시장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

알립니다!!!

대한 타이어 공업협회 홈페이지 (www.kotma.or.kr) 개편



우리 협회는 2002년 11월 홈페이지 개편에
착수하여 2003년 3월 새 단장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홈페이지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